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 부활절 메시지

부름받은 증인으로 예수 부활 전하자

이 중 윤 위임목사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종이 충현의 가족과 더불어 칠천만 이 민족 위에 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을 깨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 속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언까지 들었지만 가련하게도 마리아는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을 찾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도 환성을 지를 만한 놀라운 사건에 접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 속에서 다른 메시지나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복에서 기뻐하는 모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만에 다시 사시겠다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건만 슬픔과 절망이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지나친 슬픔과 원망은 믿음에 부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가져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히해야 할 자리에서 쉬한 일과와 절망으로 울고 있는 이인에게 “마리아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구체적인 인격인 그의 이름은 부르심으로 비로소 그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청이 있으므로 그녀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자율성이나 의지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를 인식하기 전만이 아니고 그를 확인한 후에도 어둠 속에서 해매는 상태에 있었습니

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던 그 비참하고 무력한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하면서 “압오니여(랍비여)”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네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인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인 그분께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마리아를 형제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제일 먼저 알고 효험을 받은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한 편의 강도라면 한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증거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세세토록 온 누리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예배 등 부활절 축하 행사 마련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으셨으나,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새벽 5시에는 김창인 원로목사를 모시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는 위임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 7시에는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도 마련되어 있다. 시온찬양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에서는 데릭 존슨의 “무덤을 이기시고”가 연주된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을 서로 축하하고 나누기 위해 계관콘서트, 찬양대회, 그림그리기 등을 갖는다.

수세 희망자를 위한 기초교리반 신설

성경연구원은 세례 청원자들의 신앙 지도를 위하여 4월 8일부터 기초교리반을 신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인의 증가로 세례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독교에 대한 기본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세례받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아 이를 시정해주고자 기초교리반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교리반은 4월 8일부터 매 주 원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지 소석관 301호에서 수세 희망자(개종, 입교 포함)와 기초교리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섯 주를 한 과정으로 하여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아세례나 학습 희망자, 그리고 입교자 중 충현교회 교회학교에 2년 이상 출석한 자는 새가족부가 주관하여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1일 단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은 사무국에서 받는다.

올림픽 집행위원회

오늘 준비 모임

제3차 충현올림픽 집행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5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올림픽 운영에 관한 회의를 갖는다. 교구장, 교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참가 교구의 팀 명칭, 팀 색깔, 라식 배정을 추진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10일부터 공모하는 올림픽 표어는 4월 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제5회 교구찬양대회 4월 13일 개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며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찬양을 드리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5회 교구찬양대회가 오는 4월 13일(토) 오후 2시 본당에서 개최된다.

대회 본부측은 발표에 의하면 ① 지정곡은 찬송가 245장, 478장, 519장 중 한 장을 택할아야 한다.

② 찬양 부문에서의 심사 기준은 참여도(특히 남자 성도여 참여율 중사)와 태도, 음악성 등이다.

③ 중창은 원하는 교구에서 참

여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은 8명 내지 16명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준은 태도와 음악성을 본다고 한다.

지휘자, 반주자(단 본교회 대예배 담당자는 제외) 명단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4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찬양 순서는 4월 7일에 추첨한다. 중창 부문의 참가 뒤는 대회 일주일 전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구위원회는 참가자들이 화려하지 않고, 간편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충현디아스포라(흩어진 충현인)모으기 운동 전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충현 교우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유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현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해외 거주자 및 그 가족, 우리 교회와 교우를 희망

하는 해외 교회 및 그 성도, 해외에 있는 자매 교회에 우리 교회의 정기간행물을 발송하며, 각 지부로부터 현지 소식을 보고받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충현디아스포라” 제도는 현재 성도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확보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었던 성도 중 해외 거주자들이나 그 가족의 주소를 아는 성도들은 4월 30일까지 사무국으로 연락바란다.

아담반 4월 5일 수업은 휴강입니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그리스도의 영적 고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 12: 27~30)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예수님의 고뇌

본문 27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

자의 죽음을 눈 앞에 두고 계신 것이 아 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지옥으로 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셨음을 바가복음 14장 3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를 받으시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누가복음 12장 50절의 “나는 받을 세레가 있으니 그 이후 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적 고뇌를

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지극히 고통스러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재인 받기 위하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아야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되다”(눅 2: 14)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미래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도 장차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나와 상관이 없을 때면 아무런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현재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우뢰가 올었다”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라고도 하였습니다(요 12: 29). 요한계시록 4장 9절, 8장 5절을 보면, 우뢰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요 12: 30).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채

세상 죄를 지신 주님

자기를 지시기 며칠 전, 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민망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때에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던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고뇌에 빠져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면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셨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모진 고초와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차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랑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세 차례나 거듭해서 드렸던 것입니다(막 14: 36).

2. 성도의 본분을 보여주신 예수님

본문 27절에 기록된 말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라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점밖에 안되는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뿐 아니라 예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신 예수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셨습니다.

3. 하나님께 영광돌리신 예수님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여”라고 하셨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며,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모든 고통과 모든 곤고함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됩

이 소리를 듣는 자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온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천지만물이 모두 변하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영음(靈音)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에 심한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1. 신학 교육의 목표 : 목사의 자격과 기준

요관이 좋아야 농작물이 좋은 것같이 신학 교육은 목사의 자질과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 평신도의 고학력화로 지식과 의식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 반해, 목사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정세 위기를 느끼고 재교육과 하위 과정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신학 교육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우수한 목회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인데 한국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사의 이상적 모델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 신학 교육이 조성되어야 한다. 목사의 자격(담임 3장)에 있어 기능면에서 설교자, 상담자, 행정가 등의 전문가로서 자질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 교육과 제도는 전문가로서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한국의 신학 교육 제도

많은 신학교가 난립하고 있는 만큼 학제나 제도도 다양하고 목사의 자질도 천차만별이다. 그 학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 합동, 고신 등의 교단에서는 대학 교육 이후, 3년제 미국식 신학교 제도를 채택하고 신학석사 학위를 주고 있다. 둘째 유형은 대학 신학과 4년과 2년제 대학원 신학 교육을 실시하는 감리교와 일부 장로교 신학교가 있으며, 셋째 유형은, 일부 장로교회와 오순절교회, 기타 교단 신학교가 신학대학, 각종 학교의 형태로 4년제의 신학 교육을 실시한 후 2년, 3년의 단독 목회나 목회 실습을 거친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다. 넷째, 대교단 교회가 지방에서 3년, 서울 본교에서 2

제3차 총현목음심포지움 주제 강연 I

신학교의 문제점과 그 대책



전 호 진 박사(고신대학 학장)

년 혹은 1년 교육을 시킨 후 안수를 하고 있다. 다섯째, 성직 배제의 인상을 주고 있는 2년 혹은 3년 신학 교육을 실시한 후 군소 교단에 가입케 하여 목사 안수를 하는 일부 지방 신학교와 군소 신학교가 있다.

3. 학문과 경건의 대립

한국 교회가 신학 교육의 통일성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목사의 자격을 고등 학문에 두어 신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들이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학문 위주의 신학 교육관 때문이다. 목회 경험에 있는 목사들이 현장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반지식주의적 경향은 고등 학교 졸업 후 또는 인정받은 평신도를 신학교에서 교육시킨 후 목회를 시키고 있지만 잘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 교육의 후퇴와 절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서구의 학문 위주의 공식 교육과 한국 교회의 책임 있고 강함과 지도력과 소명과 헌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신학 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은 학제면에서 너무 다양하여 학문이나 경건의 양면은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학, 대학원 중심의 신학교의 높은 학문과 부인가 신학교의 경건과 목회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하튼 제도면에서 한국 교회는 개선이 요구된다.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세계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나 봉사를 강조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사로서의 기능(예 4:11~13)이 중요하며 이 역할을 가르치는 능력과 함께 목사로서의 은사가 필요하다. 교회는 신앙, 인격, 소명, 은사를 갖춘 자를 추천하고 신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경건 생활을 함양시키며 교육하는 신학교나 교회간의 상호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로, 제정면에서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감독할 때 병설교회와 함께 하는 신학 교육이 가능하다. 자비 부단의 제정 정신도 중요하지만, 소속 교회나 교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생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제정을



제3차 총현목음심포지움이 전3백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천년대를 향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이 심포지움은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부담해야 한다.

셋째로, 학제면에서는 획일적인 제도의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근원적인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를 받는 신학 대학원 중심 교육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받아서 일정 기간 신학 예비 교육을 실시한 후, 교회 봉사를 통하여 인정받을 때 예과 과정 포함 5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케 하는 것이다.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이나 대학에서 독립하여 단설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설대학원을 통한 통일된 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공동으로 채택하여야 할 방안이다. 그리고 신학대는 소수 정예화하여 신학에 필요한 인문 교양 과목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250개가 넘는 신학교가 단설대학원으로 개편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상당수의 학교가 재정, 교수진 시설, 도서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의 학교가 통합하여 단설대학원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단설대학원으로 개편하기 힘든 학교는 4년 혹은 5년

제의 대학 과정을 시행하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위인준위원회에 준하는 신학교 연합기구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자격을 자율 규제해야 한다.

4. 결 론

21세기의 세계 선교와 신학을 추동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신학 교육의 갱신과 정비이다. 많은 신학교에 비례해 목사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 정규 신학교의 신학 교육의 우월성과 더불어 많은 무인가 신학교의 주관적 소명과 은사가 어우러져 신학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학 교육을 지식, 인격, 경건, 소명, 경험의 잘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교육이 요망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교회는 목사의 역할보다 인격을 더 중요시한다. 강의실에서 빈약한 지식을, 책에서 경건론, 기숙사 생활에서 인격도 야를 이루어 상호 봉사하는 생활이 체질화 될 때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이런 자질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학 교육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평신도 고학력 시대와 사회 산업 정보화에 발맞추기 위해 교회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로서의 인격과 교양도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3년 내지 4년제 단설대학원으로 통일하고 교단 교역자 양성이 필요한 무인가 신학교는 협회로 구성하여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군소 교단은 자기만의 빈틈성과 교만을 버리고 연합하여 초교파적 신학교를 구성하여 연합의 미덕과 목사의 자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세 기 등

시간 관리와 우선 순위



박 철 훈 장로

모든 일에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귀중한 시간 관리에서도 언제나 후회 막심이다. 수십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은 말한 것도 없고 당장 눈 앞에 닥친 오늘의 사건 앞에서도 합리적인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가지고 무절제, 무계획으로 일관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시간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받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다. 천재는 1퍼센트의 선천성과 99퍼센트의 후천성의 결과라는 말은 시간 관리의 급소를 찌른 명언이다. 이렇듯 누구나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

은 날들을 계획없이 살고 있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음을 본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어리석음을 지킨다. 더구나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의 우선 순위가 헷갈려 바뀌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일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성경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게으름에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다. 하등 큰 충도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계획장계를 실천해볼 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이따한 위치에서 있어야 하는가는 물론일 필요도 없다.

작게는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며 시간 관리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우선 순위를 따르는 철저한 삶을 살아보자. 복잡함 도세 생활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때문에 이 작은 삶의 원리가 유체파제 못해고 있다. 늦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 기상 시간이 늦어지고 해동 지동 아침 식사도 못해고 일터에 나가게 되면 하루종일 바쁘게 일에 매달리게 되어 주님의 시간을 위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은 언제나 뒷전이다. 그나마 퇴근 후에라도 성경의 시간을 가져려고 하면 일터에 많은 유혹들이 유리를 기다리고 있는게 모른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내일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것이 계속 쌓여 행 단, 일 년이 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후회와 안타까움 뿐이다.

이제는 시간애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건한 신앙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철저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시점이다.

제안은 많이 모음수로 축적되는 게미가 있고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잃어버린 시간은 전대로 되찾을 수 없고 돈이나 지혜 그 어느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깨어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우선 한 주일의 시간표만이라도 계획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대에 정하고 절대로 그 시간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라. 같은 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질을 높여서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 짧은 세분리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유용하게 쓰는 습관을 가지자.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 시간을 선용하는 데 있다.

다음호 세기등은 김은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외복음선교방송 내보낸다

이중은 위임복사의 설교가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15분부터 40분까지 미국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국(KCBS, FM 103, 1MHz)의 전파를 타고 교포들에게 전달된다.

세계 선교의 중추대한 사명을 안고 있는 우리 교회는 혼탁한 신학 사조에 방치되기 쉬운 영혼들

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고자 이와 같이 해외복음선교방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해외복음선교방송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우리 나라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의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앞으로 계속 확산될 계획이다.

세계 선교 위해 헌신하는 충현인

세계 선교를 위한 충현 성도들의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원하는 세 명의 집사가 남미 수리남에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안석렬 선교사에게 2백만원 상당의 워드프로세

서를 보내었다. 또 세계선교위원회 세속권 간사들은 성찬기 세트와 기타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었다.

한편 성도들은 충현세계선교센터의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전속헌금을 하고 있다.

충현살림경로대학 4월 11일 개강

충현살림경로대학은 4월 11일까지 1991년도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주변에 60세 이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

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살림경로대학에는 불신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개강은 11일이다.

의료전도부 무의촌 전도 활동 활발히 전개

의료전도부는 매주 토요일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을 찾아다니며 현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전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무의촌을 찾아다니면서 진료와 전도 활동을 펴고 밤 10시

에 서울로 돌아온다. 의료전도부는 아직까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보나 많은 충현 의료인들의 취미가 아쉽다고 하면서 이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청년2부

부활절 기념 특강

청년2부에서는 오늘 오후 1시에 '범죄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용진 박사(한국 교정교회 연구소장)의 부활주일 특강이 소식관 507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초등6부

제2회 안드레 운동 전개

초등6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4월 1일부터 5월까지 출석 700명을 목표로 안드레 운동을 전개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인인 한 명 내신자 영대, 영은, 양 찾기, 교회 제직 자녀 중 비출석자 색출을 목표로 삼고,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도 요령 교육과 간증을 실시하며 전도왕을 선발하여 시상도 할 계획이다.

군종장교 후보생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실시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군종장교 후보생 수련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교회는 이 행사를 군복음화의 차원에서 후원하기로 하였다.

전도회 탐방

회원 교제 위한 특별 행사 마련

- 루디아전도회 제15지회 -

이번 주 주간충현에서는 주님의 지체로 바쁜 한동을 보이고 계시는 루디아전도회 제15지회를 찾아보고 있다.

박정숙 집사님께서 회장으로, 황광자 집사님이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루디아전도회 제15지회는 현재 약 40명 정도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91년도에 새로 교구가 편성되는 바람에 아직은 낮은 식구들도 꽤 있지만 회원 배가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루디아전도회 제15지회는 다른 여전도회와는 달리 직장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그런 사정이 있는 회원들은 특별회원으로 분류, 기도와 회비 등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 관계로 월례회 등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루디아전도회 제15지회는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데에도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 전라도에 있는 월산제일교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한다. 올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회원간의 친목이다. 두 교구가 통합되는 관계로 아직 시뮬한 회원들의 사이를 사랑과정이 넘치는 관계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한다. 그

서 4월 월례회는 특별히 기도원에서 친교야유회를 겸해 갖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를 하고,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사랑의 교제도 나눌 계획이라고 한다. 박정숙 회장님은 4월 월례회를 계기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못했던 회원들의 태도가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 특히 4월 월례회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3과 중3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평소 전도회의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의 전도회가 교회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은 절대 순종하고 일을 잘 처리하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면에는 좀 부족한 것 같으며 자발적인 봉사와 활동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1년 동안 회원들과 여러 임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루디아전도회 제15지회를 이끌어 가고 또한 주님께도 칭찬받는 전도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박정숙 회장님은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슬피 하며 말했습니다(13절). 천사와의 대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뒤에 계셨으나, 마리아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14,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은 마리아에게 즉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신케 했습니다(16절).

한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앞으로 다가올 기독교 세계에 "주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복된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17절). 다시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내려갔고 이번에 전할 메시지는 방금 전 그녀가 전했던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복된 소식(복음)이었습니다.

문답

1.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본문 참조)?
2. 요한(다른 제자)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8,9절 참조)?
3.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4.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두 번 소식을 전했는데 첫 번째 소식과 두 번째 소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토의

1. 고난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발표해봅시다.
2. 지난 주 설교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봅시다.

기도

1.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새로 시작되는 4월을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2.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 나라의 평안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4. 다락방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14과 예수님의 부활

본문 : 요 20 : 1~18

찬송 : 150, 157

본문연구

1. 낙심한 마리아(요 20 : 1~10)

안식일 규례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지 못하였던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날이 미쳐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1절).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으나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였습니다. 요한은 그 뒤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한편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의미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3~10절).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으나, 마리아는 울면서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 마리아가 전한 복된 소식(요 20 : 11~18)

울면서 남아 있던 마리아는 예기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 안에는 놀랍게도 두 천사가 그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11,12절).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사람